

한국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사례연구 최종보고서)



2019년 10월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
Hanyang University Institute of Knowledge Service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한국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의
최종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0월

연 구 주 관 :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

연 구 기 간 : 2019. 09. ~ 2019. 10. (2개월)

연구책임자 : 정 평 안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장 귀하

※ 본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컨설팅대학원 및 컨설팅 R&D 센터 사업 지원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목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4
1.1 연구 배경	04
1.2 연구 목적	07
II. 이론적 배경	08
2.1 ICT산업의 정의	08
2.2 국제경쟁력 이론	09
III. 국내 ICT 경쟁력 분석	13
3.1 산업 동향	14
3.2 현시비교우위(RCA) 분석	17
3.3 세계수출시장점유율(EMS) 분석	19
IV. 결과 해석	22
4.1 국제경쟁력 분석 결과	22
4.2 한국 ICT 산업의 문제점	24
4.3 제안	27
4.4 한계점	30
V.참고문헌	32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1) 국내 ICT산업의 중요성과 위기

ICT산업은 1990년 초부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정보통신부가 설립된 이래 고도의 경제성장과 지식정보사회로의 이동으로 인해 정보통신수용량이 증대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ICT산업은 정부주도로 과감한 투자와 규제완화를 기반으로 IMF구제 금융과 같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되어 양적,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그 결과 현재 ICT 산업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평가된다. 실제 ICT산업이 한국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7.3%, 2016년 27.2%, 2017년 29.1%로 꾸준히 증가하며 한국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기준 9.2%로 국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로인해 산업의 R&D부문에서도 ICT산업의 R&D비용이 전체산업의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ICT R&D 통계치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ICT산업의 연구개발비가 전 산업의 56%~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ICT 수출액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국내 ICT 산업 주력품목의 부진으로 인해 전년 대비 22.4% 감소하였다. 또한 기업의 매출, 생산 등 주요경영활동의 결과와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수화한 지표인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2018년, 2019년 모두 88~95를 웃도는 수치를 보여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 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 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 초과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

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낸다. 이때 ICT산업의 경우에는 부정응답 업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세계경제의 침체와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 성장률의 둔화, 그리고 저비용이라는 강점을 이용한 중국 ICT산업의 급속한 성장, 미국 등 선진국들과의 좁혀지지 않는 자본 및 기술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한국 ICT산업의 수출경쟁력과 성장세가 둔화 또는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한국의 ICT산업의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정부 주도이래 양적 요소투입 증가에 의해 단기간 내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기에 선진국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의 기술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의한 질적 성장과 그에 따라 원천적인 경쟁력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ICT산업의 성장에 대한 무역 효과 추정, 2018)

(2) 다른 국가들의 경쟁력 상승

전 세계 ICT산업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전체 매출의 70% 가량을 장악하고 있고, 이때에 미국은 35%대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며,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3.6%에서 14.3%로 크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6.2%에서 2017년 9.7%로 상승하였으나 전체 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비교적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업이익률의 경우 미국이 10% 중후반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기록하며 다른 국가와 격차가 큰 편이며 한중일 3개국은 평균 5~10% 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인다. (주요국의 ICT산업 성과 비교 및 시사점, 2018)

이처럼 기존부터 ICT산업을 장악하던 미국부터 시작하여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여 2014년 시장점유율에서 한국을 제치고 다음해에 일본까지 제친 중국, 그리고 이외에도 베트남, 루마니아 등 다양한 국가들이 ICT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ICT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